

□ 中 윈난성 루이리시 방역 일선 현장 가보니...질서정연한 핵산검사, 공급 물자 넉넉

윈난(雲南)성 루이리(瑞麗)시가 6일 개최한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5월8일 루이리시 도심 및 완딩(畹町) 지역의 주민 전수 핵사검사 개시 이후 윈난성 보건당국은 의료진 700명으로 구성된 핵산검사 검체 채취팀을 파견해 핵산검사가 질서정연하게 이뤄지도록 전폭 지원했다. 6일 8시 기준 23만8794건의 검체를 채취해 21만5534건을 검사기관에 발송했다.

5일 오전 루이리시 상안(興安) 차이푸(財富)광장 핵산검사 채취소에는 시민들이 검체 채취를 위해 줄을 서 대기하고 있었다. 관계자는 이번 검체 채취는 시민들에게 층별, 시간대별로 통지해 현장 대기 인원을 40명 안팎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6일 일부 검체 채취소에 가보니 검체 채취를 하러 온 시민이 거의 없었다. “어제 대다수 시민의 검체 채취를 끝냈다. 오늘은 주로 마무리 작업을 한다. 새벽에 검체를 채취하러 온 시민은 몇 명 뿐” 이라고 루이리시 보건서비스센터 관계자는 말했다.

핵산 검사에 속도를 높이는 것 외에 방역 관련 업무도 질서정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루이리시 시장은 “전문가들이 지정병원에 상주하면서 치료를 지도하고 있으며, 개인별 맞춤 방안에 따라 1인실에서 치료와 관리를 진행하고, 중의와 서의를 통합해 대증적 치료를 하고 있다” 면서 “현재 환자들의 상태는 안정적이고 중증 및 위중증 환자는 없다. 지정병원 내 모든 인원에 대해서는 봉쇄식 관리로 교차감염을 엄격히 방지하고 있다” 고 소개했다.

루이리시의 지역 감염 확진자는 모두 최근 제가오(姐告) 국경무역경제구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이리시는 7월6일 12시부터 루이리시 제가오 귀먼 구역은 중위험 지역으로, 기타 구역은 저위험 지역으로 조정했다.

“제가오 봉쇄식 관리 구역에서 세 곳을 지정해 물자 배송 루트를 원활히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담당자가 3일치 생필품을 주민들에게 배송해 자가 격리하는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고 루이리시 시장은 소개했다.

제가오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현재 생활 물자 보장은 문제가 없으며 필요한 야채는 지역사회 서비스 담당자들이 사다 준다” 고 말했다.

루이리시 시민의 생활은 평소와 같고 슈퍼, 상점, 음식점 등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6일 오후 루이리시의 한 슈퍼마켓 진열대에는 물품이 넉넉했고,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였다. 한 시민은 “야채와 간식을 샀는데 3일은 족히 먹을 수 있다. 다 먹고 나서 다시 와서 구입할 것” 이라고 말했다.

루이리시 시장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방역 물자 보장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면서 “6일 8시 기준 시 전체 생필품 물자 비축량은 충분하고, 각종 생활물자와 의료용 외과 마스크 등 중점 의료물품도 충분히 비축되어 있고 가격도 안정적” 이라고 말했다.(新华网, 2021.7.8.)